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땀 흘려 준비해 오신 선수단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해외동포 선수단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박광태 시장과 광주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저는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녘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북녘 동포 선수단도 우리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체육대회는 국민 모두의 축제입니다. 선수단 여러분은 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자신과 고장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십시오. 이기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은 승리 이상의 더

큰 가치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국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선수단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 스포츠계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포츠 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올림픽·월드컵을 비롯한 세계적인 대회도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올해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습니다. 체육인 여러분과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이뤄 낸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내년 베이징올림픽 때는 남북이 함께 경의선 열차를 타고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러 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단일팀을 응원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성취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부도 선수 여러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모두 열심히 해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의 우리 선수단이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하나하나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향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도 다음 달에 기공을 하게 됩니다. 서남권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또한 광주의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저도 광주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멋진 승부를 펼쳐 주시고, 좋은 기록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국체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